

대한민국 100년과 역사의 빛

국회도서관장 허용범

yb22032@nnet.go.kr



저작자표시(BY)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날 흥진 전시실 앞에서 경과 보고를 하는 허용범 국회도서관장

법과대학 출신이면서 왜 판검사로 가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술하게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다. 나는 그때마다 내 능력이 그 정도가 되지 못해서라고 대답하고 말지만, 내 능력 유무를 떠나 다른 사정이 있었다.

‘입학식부터 졸업식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데모가 이어졌던 1980년대 초의 대학생활. 정치권력에 대한 저항은, 나와 똑같았던 못 학생들이 제 생명까지 걸 만큼 강했고 오래갔다. 언제 끝날지 몰지도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런 시대에 판검사가 되는 것은, 일본 식민지 시절 일제의 판검사가 되어, 독립운동하는 제 민족 동포를 고문하고 처단하는데 앞장선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결국 나는 다른 길을 걷기로 결심했고, 그것은 최소한 권력의 반대편쯤에 서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또 많은 학생들이 그러했다. 어느 길을 걸었든 그 시대를 거처온 대학생들은,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는 여러 시각이 있지만, 당시 데모대에 앞장서던 학생들에게 미안함과 부채의식을 갖고 있었다.

지난 4월 10일, 국회의 전신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앞두고 거의 1년이 넘도록 이 행사를 준비하며 일제에 항거한 많은 사람들의 기록을 읽고 듣게 되었다. 그런 때 나는 다시 한 번 역사의 부채(負債)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 대학시절과 시대가 다르다고는 하나, 어떠한 권력에 대한 저항, 삶에 대한 결단이라는 측면을 자꾸만 주목하게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국회도서관 1층에 흉상을 세우게 된 만오 홍진 선생은 그런 분 중의 하나다. 경술국치 전에 이미 판검사를 하던 전도유망한 법조인이었던 그는 검사로서 의병들에 대한 논고를 거부하고, 검사직을 그만두었다. 이후 그는 국내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상해로 건너가 평생 독립운동을 했다.

부귀가 보장된 길을 그는 마다하고 일제권력에 저항하는 삶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나마 홍진 선생은 광복을 보았고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가 마지막에 쓴 휘호 與子同歸(여자동귀)의 뜻 그대로, 자식들과 함께 해방된 조국에 돌아오는 감격을 누렸다. 그러나 당시 상해와 만주, 노령, 미국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은 처참했다.

이번 임시의정원 100주년 행사에 독립운동가 유족 대표 중 한 사람으로 참석한 이종찬 전 국회의원의 할아버지, 즉 이 회영 선생의 형제와 가족들은 죄다 목숨을 바쳤다. 경술국치 해에 이회영 6형제는 현재 돈으로 600억 정도로 추정되는 엄청난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에 가 독립투쟁을 하다가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쏟아붓고서 극도의 궁핍 속에서 숨졌다.

형제와 자식들까지 모두 죽거나 죽임을 당했다. 6형제 가운데 다섯째인 이시영만 살아남아 1945년 11월 23일 김구 등 다른 임정요원들과 한국했다. 한국을 앞두고 상해 비행장에서 찍은 출국 직전 기념사진을 보고 있으면, 언제 끝날지



한국을 위해 상해에 도착한 임시정부 요인들(1945. 11. 5.) 왼쪽부터 김구식, 조완구, 김구, 안미생, 오른쪽에서 두번째 중절모를 쓴 노인이 이시영이다/우당기념관

도 모르는 참혹한 세월을 견뎌온 끝에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갈게 된 그들의 표정에서 눈을 땔 수가 없다. 사진 속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웃거나 굳은 표정인데 비해, 고개를 떨군 채 손으로 눈물을 훔치는 중절모 차림의 노인이 한 사람 있는데, 그가 바로 전 재산과 형제 모두를 잃은 이시영(후에 대한민국 초대부통령)이었다.

예는 술하게 있다. 가령, 나라가 망할 무렵 전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정순국(自靖殉國)을 한 사람은 90명 정도이고 그중 나의 고향이기도 한 안동지역에서 가장 많은 13명이¹⁾ 독약을 마시거나, 머리를 찢거나, 음식을 끊어 스스로 삶을 마쳤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떠났다. 지금도 남아 있는 안동의 고래등 같은 99칸짜리 집 임청각(臨淸閣)을 버리고 온 가족과 만주로 가 독립운동을 했던 석주 이상룡 선생도 같은 경우였다. 임시정부 국무령을 지냈던 그는, 해방이 될 때까지 불령선인(不逞鮮人)이었다.

그래도 그들은 역사에 이름이라도 남긴 분들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죽어갔다. 지난 10년간 '세상에서 외면 받고 역사에서 잊힌' 여성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좇아온 여성사인 이윤옥의 『서간도에 들꽃 피다』가 벌써 10권에 이를 정도가 되었다. 이윤옥 시인은 얼마 전 나를 찾아와 혼자서 해운 이 10년간의 발자취 추적이 또한 얼마나 험난한 것인지를 말해주었고, 나는 죄스러운 마음마저 갖지 않을 수 없었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의병활동을 하는 이는 일본군에 의해 초토화되었다. 일본군은 총칼로 무참하게 죽였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전국에서 목숨을 건 의병활동을 하다 일본군 총검에 죽은 이가 무려 1만 7779명이었다. 스스로 자결을 택했던 매천 황현은 “강한 자는 적진에 돌진해 싸우다 죽고, 다친 자는 꾸무럭대다가 칼을 받았다”고 매천야록에 기록했다. 나라의 군대로 징집된 것도 아닌 의병으로 일어서서 삶을 초개처럼 버린 선조들이었다.

서울에서 만세운동을 보고 고향에 내려가 열일곱 살 나이로 3.1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유관순의 만세현장 천안 아우내(한자어로는 병천순대로 유명한 병천·竝川) 순국자 추모각에는 그날 일본헌병의 총에 맞아 죽거나 옥사한 사람들 외에 '신원미상인 순국자가 다수 있음'이라고 특별히 적혀 있다.²⁾ 것처럼 나라를 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 기록에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였을 것이다.

자신의 전 삶을 걸고 목숨을 바친, 초인적 결단의 그런 '신

원미상'의 사람들. 지금의 대한민국은 100년 전 그들의 희생 위에 있음을 나는 이번 100주년 행사 준비과정들을 통해 새삼 통감했다.

10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였던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의의와 헌법적 가치 국제세미나' 축사를 할 때, 나는 원고에도 없는 “부끄럽다”는 표현을 나도 모르게 썼다. 지금까지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나를 배웠다고 여겼는데, 임시의정원은 이름조차 생소했노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 불과 한 달 여 뒤 설립된 임시의정원에서 제정한 최초의 헌법(임시헌장)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것이었는지를, 명색이 법과대학을 나왔다는 사람이 하나도 몰랐다는 게 부끄럽다고 말했다.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지금의 헌법 제1장 제1조가 100년 전 그 임시헌법에 지금과 같은 문장으로 같은 위치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도 국회도서관장이 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다.

오천 년 역사를 통틀어 왕조(王朝)와 전제(專制), 계급사회를 유지해왔던 한민족이 도대체 어떻게 그 한순간에, 공화, 민주, 평등, 평화와 같은 인류보편의 이념과 현대적 국가체계를 도입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헌법에 명시할 수 있었는지, 아득하기만 했다. 그만큼 그들은 왕조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나라'를 꿈꿨고, 그 꿈이 간절한 만큼 이미 깊이 준비해 왔던 것이 아니었나 여겼다. 그들은 그런 꿈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그 혹독하고도 처참했던 시기를 견뎌 내었을 것이다.

사는 게 모두 빛이라고 누군가 오래전에 내게 말했다.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내가 살아있게 된 것을 자각하며 감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 내가 사는 나라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자신의 전 삶을 희생시킨 그 많은 독립운동가와,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투사들과, 해방 이후 새롭고도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신한 선인들의 피와 땀과 눈물 위에서 세워져왔음을 나는 기억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런 선조와 동포들에게 빛을 지고 있는 것이고, 지난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은 그 역사의 부채(負債)를 우리 모두에게 되돌아보게 하고 일깨워주는 계기였던 셈이다. 🌈

1) 심상훈 <충의의 길, 부부의 길을 함께 한 순국자정>, 충청문화연구 제7집, 2011년

2) 조선일보 2016년 1월 27일자 <박종인의 땅의 역사>에서 일부 인용.